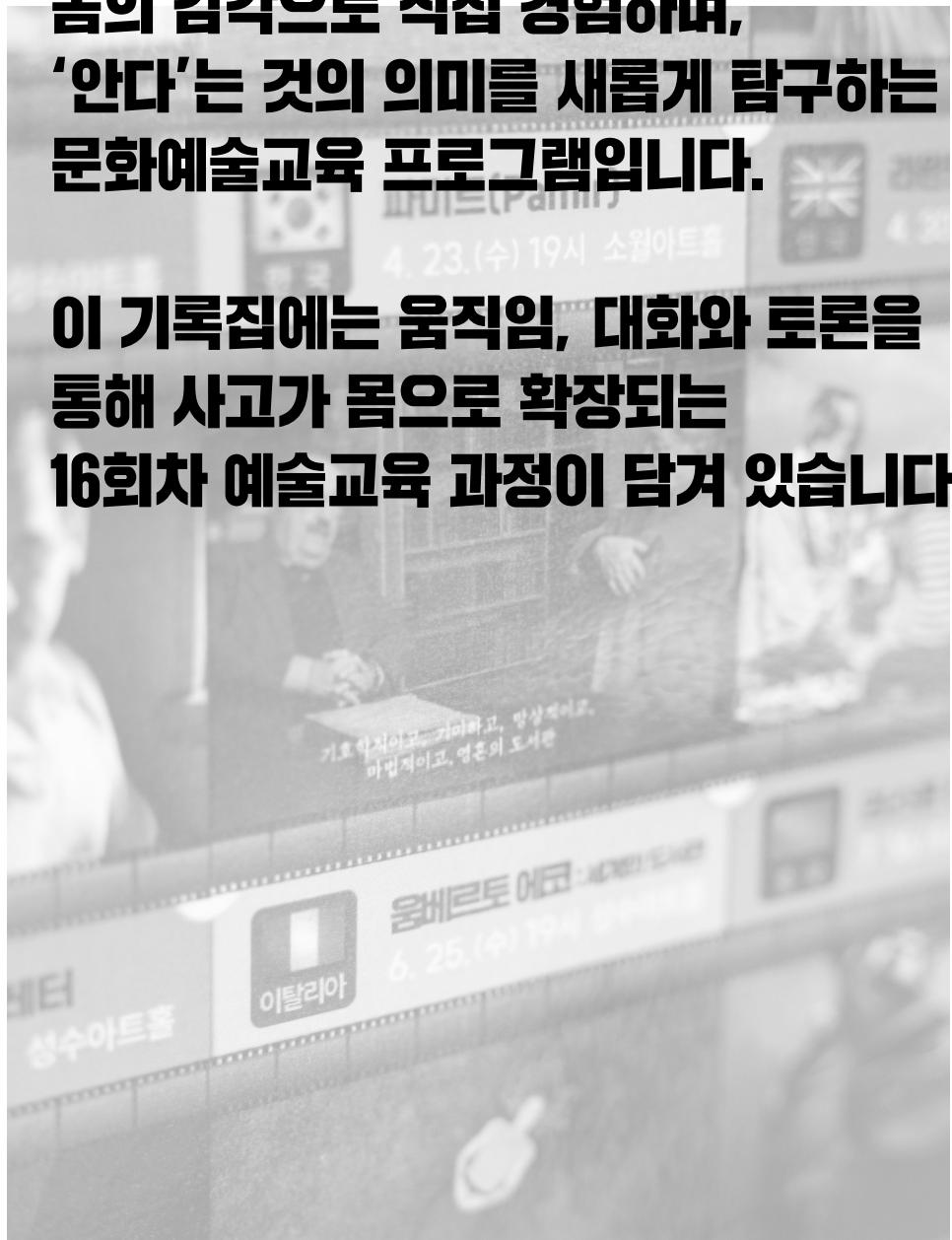




2025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동문화재단 예술로 다가감(多加感)
영화로 떠나는 예술여행 '시네마 공감'

**이 프로그램은 영화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영화가 던지는 이미지와 질문을
몸의 감각으로 직접 경험하며,
'안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탐구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록집에는 움직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사고가 몸으로 확장되는
16회차 예술교육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01

**프로그램
배경**

02

**참여자
지원동기**

03

**예술교육
일지**

CONTENTS

04

주요활동
사진

05

맺음말



- **기획의도**

1. 참여자의 생애주기 및 생활권 특성

본 프로그램의 주된 참여자는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제한된 청년과 중장년층을 비롯해, 폭넓은 연령대의 지역 주민입니다. 이들은 경제적·가사적 책임 등으로 개인 시간이 부족하며, 예술 활동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가·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큽니다.

2. 융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 제안 이유

영화 감상과 연극적 실천을 결합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과 이야기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년·중장년층이 지닌 삶의 경험과 통찰을 존중하면서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교육 구조를 설계하여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연극 활동을 통해 영화 속 상황을 ‘체화’함으로써 참여자 스스로가 예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돋습니다.

3.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에게 남는 의미

낯설었던 예술 매체(영화, 연극)를 ‘자신의 문제’로 이어가며 깊이 체험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맷은 세대 간, 이웃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함께하고자 하는 새로운 동기가 생겨납니다.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후에도 일상의 다양한 문제를 예술적 관점으로 풀어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 **예술교육 목표**

1. 영화 속 인물과 상황을 자기 삶에 대입하여, 연극적 방식으로 직접 ‘살아내는 경험’을 통해 감상과 해석 능력을 심화시킵니다.
2. 다양한 세대와 의견을 교류하면서, 개인의 경험을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공감 능력을 높입니다.
3. 참여자 스스로 예술 창작의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향유·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02. 참여자 지원동기

누군가 취미를 물어볼 때, (진부 할 수 있지만) 늘 ‘영화 감상’이라고 대답했어요. 혼자 맥주 마시며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너무 좋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아합니다. 20대 때는 지인들을 모아 영화 감상 모임도 열곤 했었어요. 같은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다보면, 저만의 세계가 확장되는 느낌이 드는데, 바로 이런 점이 기대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어필을 해보자면, 왓챠피디아 기준 1300편 이상 영화를 즐겼답니다!

영화 를 그냥 보는 관람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보는 감상을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그리고 받아들이는 방법 등을 배우고 싶네요.

평소 문화, 예술, 공연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자 노력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서로 의견도 들으면서 좀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혼자 감상하던 영화를 타인과 함께 관람하고 그 감상을 나누는 기회를 통해 삶이 영화에 스며드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함께 나누는 영화를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의 삶을 더 가까이 바라보고 싶습니다. 나에 대한 인식도 낯선 시선으로 재조정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급변 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고 문화적 감각을 익혀가며 여가생활을 누리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영화 와 예술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이야기 나누는 자리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온퇴 후 이전에 희망한 역할극 등을 통해 내 안의 재능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싶어서 지원합니다.

30대가 되어 뒤늦게 시작한 공부, 대학원 입학과 졸업, 치열하게 달려오며 올해부터 새롭게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일에 대한 회의와 피곤으로 삶에 생동감을 잃고 있습니다. 제 취미 중 하나가 영화감상인데, 지친 마음에, 휴일에 영화 한 편 진득하게 볼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며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느끼던 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사람들과 함께 감상하고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생각하니, 스물스물 마음에 일렁 임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요즘 지친 제 일상에 숨통이 되어줄 것 같다-는 강렬한 생각이 스쳐 이렇게 지원합니다. 꼭 함께해서 제 삶에 활력을 찾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정이 탄력근무하는 날이라 모두 참석할 수 있습니다:))

50대 중반이 되니 인생 의미와 삶의 가치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가정과 자식들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주변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영화를 통한 간접 경험과 만나게 될 참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보람되고 알찬 일상을 보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싶습니다. 관객 시점을 넘어 무대 주인공이 되어 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계층 사람들과의 공감대도 폭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깊이는 자연과 예술, 이를 이야기하는 인간 상호작용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독립영화, 대학로소극장연극을 자주 보고, 특히 작은 연극무대에서 깊은 성찰과 놀라운 연기에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영화와 연극의 서사와 표현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지역 청년들과 영화를 보고 생각을 공유하며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이 개인화된 세상에서 지역 내 다른 청년들의 생각과 이야기가 궁금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 <움베르토 에코 : 세계의 도서관> 연계활동

• 예술교육 주제

에코가 주장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출발점으로 한 인물 창작과 ‘기억의 도서관’ 탐구

• 초점

1. 에코의 메시지를 예술교육의 본질과 연결해, 상상과 창작의 힘을 체험한다.
2. 참여자들이 집단적으로 인물을 만들고, 외형·습관·내면을 확장해가는 과정을 통해 드라마적 인물 구축을 경험한다.

• 내용

1. 신체·정신 컨디션 점검, 걷기·점/선/원 만들기 등 기본 훈련으로 몸을 열었다.
2. 영화 관람 후 기억에 남는 장면과 한줄 소감을 나눴다.
3. 포스트잇에 키워드 작성 후 집단적으로 ‘로버트’라는 가상의 60대 남성 인물을 만들어 갔다.
4. 외모, 습관, 성격, 내면의 고민, 상징적 오브제(가방·흉터·가발 등)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며 인물의 삶과 갈등을 구축했다.
5. 마지막에는 인물의 일상(아침-점심-저녁-밤)과 과거 사건(아내와의 사고, 무릎 흉터)을 희곡적으로 확장했다.

• 참여자 반응

참여자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점차 살아 숨쉬는 것처럼 구체화되는 과정을 흥미로워했다. “진짜 아는 사람 같다”, “이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궁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상상 속 인물이지만 자신의 경험과 고민이 투영되며 몰입이 높았다.

• 예술가의 발견과 질문

영화 속 에코의 메시지가 그대로 확인됐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함께 구축하는 과정이 예술교육의 본질이라는 점. 참여자들은 단순히 설정을 나열한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인물에게 비추며 의미를 확장했다. 앞으로 이 인물이 극적 사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일지, 그 과정을 어떻게 무대화할 수 있을지 질문이 남았다.



#2. <리스본 마루의 침몰> 연계활동

• 예술교육 주제

역사적 사건이 남의 문제에서 자기 문제로 전환되고, 그것이 강력하게 일상으로 들어왔을 때 달라지는 태도와 신념의 무게 탐구

• 초점

1. 다큐멘터리 감상에서 출발해, 극적 상황을 연기하고 토론하며 죽음과 생존의 갈림길을 직접 체험한다.
2. 인물의 신념이 어떻게 가족사·환경·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지 탐구한다.
3. 단순 감상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환원되는 사유를 경험한다.

• 내용

1. 입영통지서 낭독 - 전쟁 징집의 긴장과 불안을 텍스트로 체험.
2. 각 인물의 어린시절, 신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승호팀: 아버지 부재,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어린 소년, 생명을 존중하지만 전쟁에서는 총을 들어야 하는 아이러니.
 - *태우팀: 도덕 교사 아버지의 정의, 비리를 밝히려는 신념, 가족의 무게를 짊어진 아들.
3. 각 팀은 인물의 성장 과정과 신념 형성 사건을 장면으로 표현.
4. 가족 인터뷰 - 승호 엄마, 태우 아빠의 목소리로 내면 고백.
5. 후회, 죄책감, 기대와 좌절이 섞인 감정들을 통해 신념이 전해지는 방식 탐구. 영화 관람 후 인상 깊은 장면을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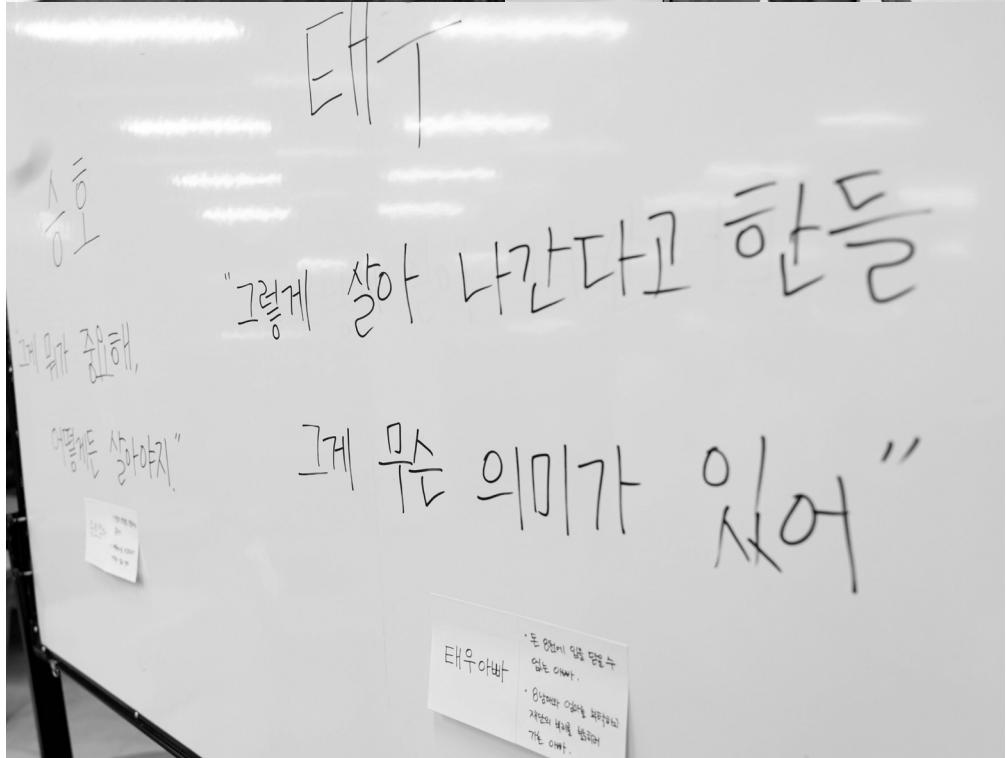
• 참여자 반응

토론연극에서는 실제 병사가 된 듯 감정이 널뛰는 몰입을 경험했다고 했다. “답이 없다, 각자의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성찰도 나왔다.

신념 구축 활동에서는 인물들의 가족사와 배경을 설정하며 “신념은 개인 의지가 아니라 환경과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공감을 형성했다.

• 예술가의 발견과 질문

참여자들이 역사적 사건을 자기 문제로 환원해 사유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질문이 남는다. “참여자들을 드라마의 세계에 어느 정도 놓도록 초대할 것인가?” 몰입을 강하게 만들되, 지나친 설명이나 추상성을 줄이는 세밀한 조건 설정이 필요하다.



#3. <하얼빈> 연계활동

• 예술교육 주제

영화 핵심 소재인 '귀환과 배신, 기억과 죄책감'이라는 서사를 극적으로 탐구하기

• 초점

1. 영화 속 '왕래가 끊겼던 인물이 귀환한다'는 설정을 토대로, 참여자들이 각자의 인물을 만들고 기억·변명을 발화하도록 한다.
2. 감각적 훈련과 즉흥 연기를 통해 죄책감·책임·두려움·용서 같은 인간 내면의 감정을 체험한다.
3. 집단적으로 구축한 세계관 속에서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탐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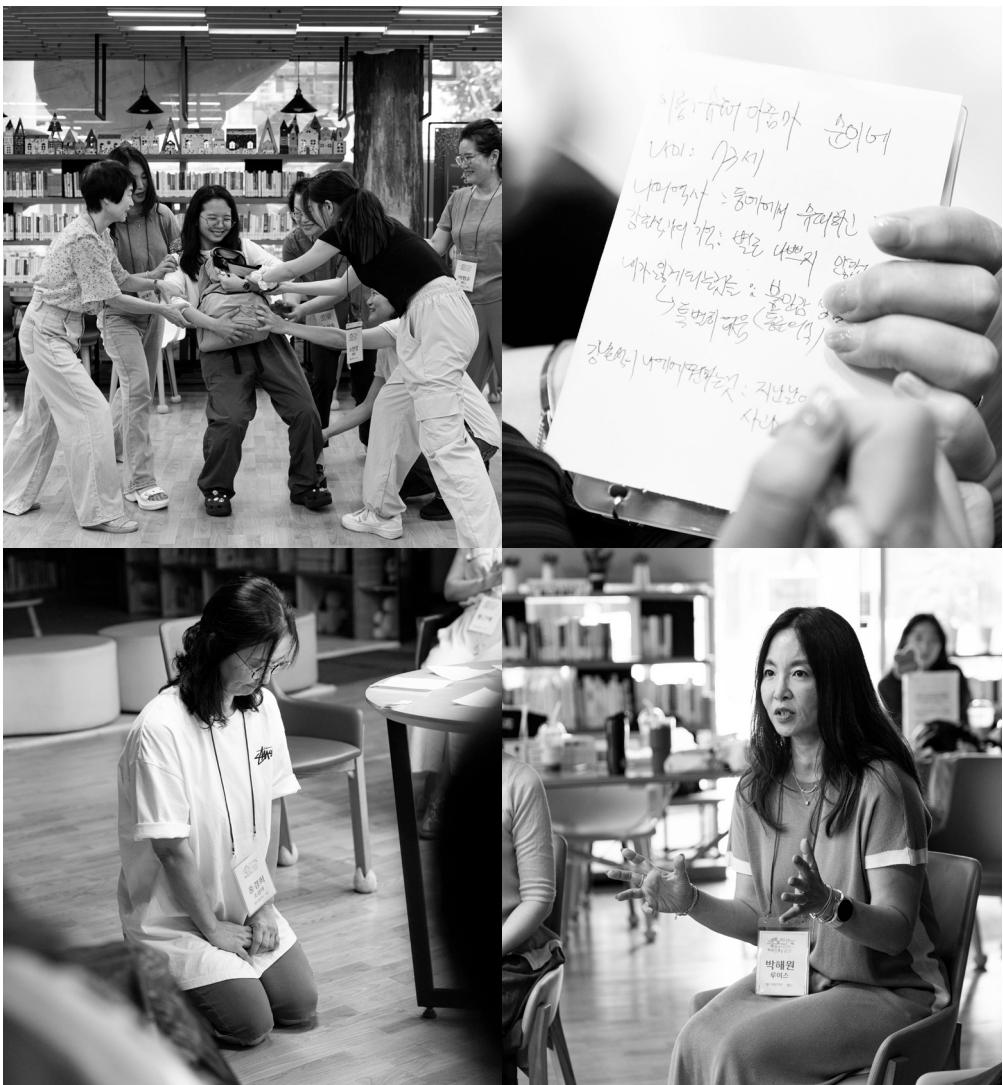
• 내용

1. 강호석이 40년 만에 돌아온다는 극적 맥락 제공
2. 작은 어촌 마을, 절벽에서 죽었다고 믿었던 인물의 귀환 소문이 돌며 공동체 전체가 동요한다.
3. 다방·슈퍼·선착장·교회 공간을 오가며 낯선 인물을 목격하는 즉흥 장면.
4. 인물 창조와 집단 이야기
참여자들은 마을 사람, 동료, 가족 등 각자의 인물을 설정하고 이름·나이·강호석과의 기억을 기록.
5. "그가 돌아와서 내가 잃게 될 것"과 "그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질문으로 삼아 개별 사연을 서술. 불안, 변명, 책임 회피, 참회 등 다양한 태도가 드러남.
6. 장면 만들기, 정지 동작으로 강호석에게 빚을 진 과거 장면(군자금 갈취, 동지들에게 나눔) 구성.
7. 2인 1조로 '아버지와 아들'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재현. 아들은 회피를, 아버지는 미해결의 과거를 마주하려는 태도를 보여 긴장 고조.
8. 토론 연극 - 김호철과 강호석
즉흥적으로 배신·죄책감·원망·용서를 둘러싼 대화가 펼쳐짐.
9. 마을 사람들의 회의
"사죄하고 함께 살자" vs "다시 죽여야 한다" vs "회유해보자"로 공동체가 분열.
10. 은성여관에서 강호석을 처단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참여자들은 앞으로 나가기/뒤돌아서기로 각자의 결단을 표현.

• 예술가의 발견과 질문

영화의 서사를 단순 재현하지 않고, 몸·글·토론을 엮어 다층적인 미적 경험을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참여자들이 역사적 사건을 자기 문제로 환원하며 삶과 연결하는 순간이 의미 있었다.

또한 영화의 정수를 어떻게 연극적 방법으로 참여자의 미적 경험으로 옮길 것인가? 드라마 자체의 힘을 믿되, 어떤 장치로 발화를 증폭시킬지 고민이 필요하다. 매 회차마다 새로움을 주는 형식과 영화와의 연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4. 지역단편영화 연계활동

<지속가능한 일상을 위해>, <독안에 든>, <어떤 여행>

- **예술교육 주제**

지역 단편영화 관람 후 영감을 받아 짧은 희곡 쓰기

- **초점**

1. 영화를 단순 감상이 아닌 창작의 출발점으로 전환한다.
2. 참여자가 영화 속 주제·인물·상황을 자기 경험과 연결해 서사로 재구성 한다.
3. 희곡 형식(공간-인물-사건)을 활용해 극적 이야기 만들기를 경험한다.

- **내용**

- 1. 영화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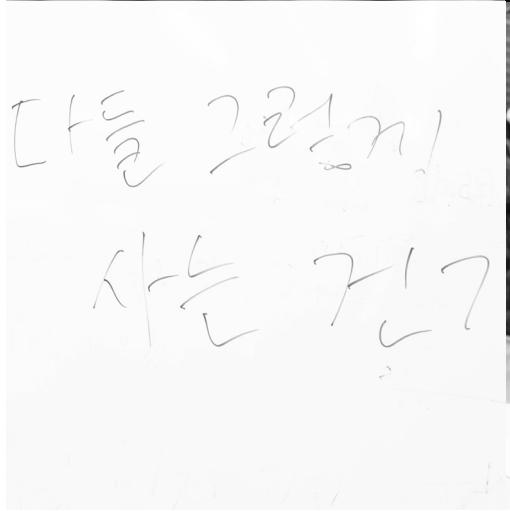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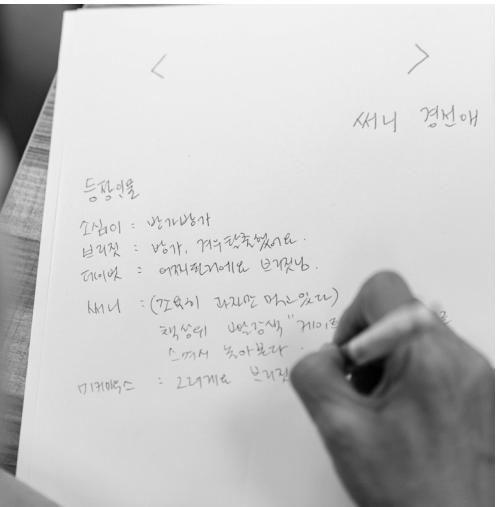
- 1. 영화 관람
<지속가능한 일상을 위해> 일상 속 작은 환경실천을 다룬 작품.
<독안에 든> 긴장과 갈등을 소재로 한 사회초년생의 드라마적 상황.
<어떤 여행>: 장애를 가진 청년이 평범한 일상을 꿈꾸는 이야기.
 - 2. 희곡 기본 구조(공간-인물-사건)를 갖추고, 마지막에는 “왜 그 행동/선택 이 불가피했는가”를 결말로 담는다.
 - 3. 분량은 1~2쪽, 제목과 대사·지문 형식을 따르도록 안내.
 - 4. 참여자들은 영화 속 장면을 직접 변주하거나, 전혀 다른 상상을 덧입혀 희곡을 작성했다.
 - 5. 일부는 교훈적 결말(“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로 갔고, 일부는 인물의 욕망과 갈등을 과감히 드러냈다.
 - 6. 짧은 시간이었지만 집중도가 높아, 대부분 완결된 이야기를 작성했다.

- **예술가의 발견과 질문**

영화 감상이 곧바로 글쓰기로 연결되니 참여자의 몰입도가 높았다. 다만 영화의 여운 때문에 일부 글은 교훈적·도덕적 결말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 영화의 메시지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참여자의 고유한 이야기를 더 끌어낼 수 있을까?

- **한계점**

시간 제약으로 인물과 사건을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 서둘러 끝맺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 참여자는 영화의 주제에 지나치게 매여 자유로운 상상이 제한되었다.



#5. <카라바조: 영혼과 피> 연계활동

- **예술교육 주제**

카라바조의 회화 세계를 통해 빛과 어둠,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기

- **초점**

1. 영화와 그림 속 극적인 이미지에서 출발해, 참여자 개인의 삶 속 빛과 어둠의 양면성을 자각한다.
2. 단순 감상에 그치지 않고, 정지동작·조각상 활동·모방과 변주로 신체화 한다.
3.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 숨어 있는 충동과 본능을 드러내고 성찰한다.

- **내용**

1. 각자 인상 깊었던 장면과 남은 감정을 나눴다. 일부는 “지루하고 공감이 어려웠다”는 반응을, 또 일부는 “강렬하고 예술적으로 인상 깊었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2. 키워드는 빛, 어둠, 칼부림, 대비, 모순. 먼저 몸풀기 활동으로 빛과 어둠의 대비를 정지 동작으로 표현. 제시어(승리, 사랑, 구조하다)에 맞춰 정지동작을 취한 후, 불을 끄면 반대 의미의 동작으로 전환. 개인의 경험이 담긴 조각상으로 표현.
3. 그림 감상과 상상 확장. 카라바조의 강렬한 그림 이미지를 보며 “이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이 장면은 실제인가, 상상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참여자들은 폭력, 복수, 가족 내 갈등, 성적 억압 등 다양한 창조적 해석을 내놓았다.
4. 예술가들은 “이 모든 것은 인물의 머릿속 상상”이라는 관점을 제시하며, 정상적 일상과 내면 충동의 대비를 강조했다.
5. 정지동작 활동. 다섯 팀이 그림 속 인물들의 ‘일상’을 설정하고, 그 일상 속에서 어둠의 충동이 올라오는 순간을 정지동작으로 표현했다.
예: 평화로운 바느질 속에 감춰진 분노, 아픈 이를 돌보는 듯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준비하는 긴장 등.
6. 빛과 어둠의 장면 만들기. 두 팀으로 나누어 선택한 그림을 그대로 모방한 뒤, 그와 대비되는 평화로운 상황을 창조.
7. 일상 속 빛과 어둠 찾기. 참여자 개개인이 평소 자신의 모습(빛)을 정지 포즈로 표현, 불을 끄면 내면의 어둠을 드러내는 포즈로 전환. 평범한 삶 속에 숨겨진 본능과 불편한 진실을 신체로 탐색했다.

- **예술가의 발견과 질문**

조각상 활동에서 예술교육가의 멘트(“자신의 경험이 묻어나는 조각상이 되자”)가 참여자들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같은 활동이라도 리더의 초점과 안내에 따라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결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예술가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안내할 때, 참여자들은 더 몰입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참여자들이 서로의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고 몸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인간 본성의 불편함을 직접 마주했다.

- **한계점**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다 보니, 한 그림을 깊게 탐구하기보다는 얕게 여러 활동으로 지나간 아쉬움이 있었다. 쉬는 시간 뒤 “전 활동은 그렇게 끝난 건가요?”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는 집중과 탐구의 밀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03. 예술교육 일지

성과 공유회

- **예술교육 주제**

시네마공감 예술교육의 전체 과정을 돌아보며 성찰과 공유의 시간 갖기

- **초점**

1. 16회차에 걸친 예술교육 흐름을 되짚으며, 각 영화와 연계활동 의미를 다시 정리한다.
2. 참여자들이 스스로 느낀 변화와 소감을 나누며 프로그램을 개인의 삶으로 연결한다.
3. 예술교육가와 참여자가 함께 과정을 갈무리하며 배움과 경험을 마무리 한다.

- **내용**

1. 이번 회차는 프로그램 마지막 시간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다과를 나누며 지난 활동 기록 사진과 영상을 함께 보았다.
2. 예술교육가가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각 연계활동의 주제와 초점, 그리고 수업에서 시도했던 교육적 실험들을 직접 설명했다. 이후 참여자들은 자유롭게 소감을 나누며, “영화를 보고 토론하는 수업일 줄 알았는데 몸으로 느끼는 예술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다”, “예술이 내 일상에 들어와 나를 바꾸는 걸 느꼈다” 등 다양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 **예술가의 발견과 질문**

예술교육 과정은 정답이 아닌 경험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이 과정이 단순한 수업의 끝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술이 지속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 **한계점**

프로그램 전체 흐름이 마지막 성과공유회에서 비로소 하나로 정리되면서 일부 참여자들은 초반 회차에서 느꼈던 작은 의문들을 뒤늦게 해소하였다. 이는 과정 중간에도 프로그램의 큰 구조와 방향을 조금 더 자주 환기했다면 참여자들이 각 회차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번 마무리 시간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며, 참여자들이 스스로 경험의 가치를 정리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태연 예술교육가

영화를 보고 왔더니 연극을 하란다.

준비물은 열린 자세다.

월요일이라는 암울한 시간이다.

심지어 오전 10시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이다.

낯선 장소다.

낯선 이야기다.

왜 우리는 시간을 같이 보냈지?

왜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하지?

왜 우리는 이탈하지 않았지?

쓸데없는 짓이다.

쓸모없는 생각이다.

모험적인 사유의 발화다.

즉흥적인 행동의 발작이다.

충동적인 상황의 연속이다.

그 월요일이, 그 오전이, 그 낯섦이

나에게 어떤 시간이었을지.

김해웅 예술교육가

다양한 연령층이 모이는 참여자들과 영화를 보고 ‘연극’으로 어떤 예술교육이 되어야 할지 막막했다.

첫 만남 때 우리의 수업의 방향이 담긴 요리를 선보였고, 두 번째

수업, 세 번째 수업부터는 이 요리를 맛 볼 준비가 된 참여자들만 남았다. 결국 남을 사람은 붙잡지 않아도 남고, 갈 사람은 붙잡아도 가는 것 같다. 수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연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무엇일까? ‘연극’만이 할 수 있는 예술교육은 무엇일까? 예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참여자분들의 빠른 ‘몰입’이었다. 모두가 같은 영화를 보고 난 후 만나서 이루어지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더욱 더 빛을 발했다고 생각한다. 영화 속 주제와 참여

자 개개인의 경험들이 만나져 극적 세계관과 인물이 구축된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져 나오는 인간의 본성, 인간 내면의 본질에 가까운 우리의 민낯을 마주한다. 얹지도 끄

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라는 강한 극적 몰입 속에서 그들의 경험에 묻어져 나오는 게 인상 깊었고, 이것이 연극이 할 수 있는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예술가로서 참여자들을 만날 때, 난 어떤 이야기를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가? 나누고자 하는 초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건강한 성장통의 시간이기도 했다. 어쨌든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함께 유대를 형성하며 연극으로 만나 함께 한 이 순간과 끝까지 당황스러웠을 요리를 맛 볼 용기와 모험심으로 함께 해준 참여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박진선 예술교육가

폭넓은 연령대를 하나로 아우르는 예술의 힘. 영화, 그리고 연극. 참여자들과 만나기 전에는 이 넓은 폭의 갭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했던 것이 무색하게 영화 속에서 자신들이 발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를 꺼내보이는 참여자들을 보면서 그 걱정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 선 지금은 다양한 세대의 통합이, 그들의 진짜 만남은 어쩌면 예술 속 자신의 발견을 바탕으로 내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서로 세대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이해해봐요~~라는 결국 지겹도록 들은 서로의 고충과 아픔 스토리의 반복이 아니라 영화를 보며 일어난 사유와 연극적인 만남 안에서는 각각의 인생의 견해가 들어간 진솔한 만남이 가능하다는 걸 경험했으니까.

서경원 예술교육가

끝까지 함께한 참여자들에게 존경을 보낸다. 수업을 시작할 때는 금세 뭔가를 얻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었다. 빨리 결과를 내놓으라는 듯한 눈빛도 있었고, 첫 수업만 듣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예술교육이 어떤 건지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평가부터 내리고 떠난 것이다.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다. 연계활동이 두 번 정도로 짧게 끝나다 보니, 더 깊이 들어가고 오래 탐험하기는 어려웠다. 만약 다시 한다면, 하나의 영화에서 시작해 몇 번이고 이어가면서, 참여자들과 드라마 속에서 더 오래 놀고 더 깊이 사유해보고 싶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다. 투자하면 바로 수익이 나야 하고, 물건 사면 바로 효과가 나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예술교육은 그렇지 않다. 오늘 배운 게 내일 바로 결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남는다. 어느 순간 불쑥 우리 삶에 스며들어 영향을 준다. 그게 예술교육이다. 그래서 끝까지 참여한 분들이 더 대단하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분들 안에는 분명 작은 씨앗이 심겼다고 믿는다.

이번 시네마공감은 다양한 영화를 보고 연극으로 이어가는 방식이었다. 영화마다 다른 주제와 질문이

주최·주관



협력



후원

